



입 댄 고유정... “졸피뎀 먹인적 없다”

제주지법 어제 전 남편 살해사건 제4차 공판
우발적 범행 주장에 검찰 “납득안돼” 진술 일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입을 뗐다. 자신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현장에서 이를 들은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나타난 고씨는 재판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머리로 이전보다 덜 내려 방청석에 얼굴을 살짝 비쳤다. 8장에 달하는 자신의 입장문을 이날 낭독하기로 하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낭독에 나선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현 남편에게 나의 억울함을 해명할 뒤에 하자고 생각했다”며 “그 억울함은 전 남편이 편지에서 나를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흥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는 “당시 전 남편은 졸피뎀이나 카레를 먹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도 하는 등 맑은 정신이었다”며 “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검사도 계획 범죄라며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고씨도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맞서며 법정에서 술렁이기도 했다.

사체 손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현 남편과 몇일째 연락을 하지 않아 전화가 아닌 직접 만나 해명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고씨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 남편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카레를 먹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이와 배치되는 아들의 진술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체 훼손도 현 남편에게 해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증인 심문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2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앞선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5차 공판을 진행하며, 증인으로는 범행 직후 다친 고씨의 손을 치료했던 의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고유정이 30일 제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모슬포해안 어선 좌초



30일 오전 4시11분쯤 서귀포시 모슬포 운진항 서방파제 인근 해안에서 제주 선적 어선 J호(24t·승선원 12명)가 좌초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서귀포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J호를 모슬포항으로 예인하는 한편 J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태윤기자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서귀포항에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45분쯤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 해안가 인근에서 운송중이던 마을 주민이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이번 발견된 푸른바다거북은 길이 약 90cm, 폭 57cm로 전체적으로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이 부상당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2공항 평가 졸속 의혹”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부실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과 부실이 증명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행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활주로 이용 방향에 대해 북풍 80%, 남풍 20%를 적용,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 80%,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 20%로 상

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 이·착륙시 필요한 양력은 맞바람을 안은 상태로 뜨고 내릴 때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착륙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풍이 80%라면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이 80%가 돼야 하는데 평가에서는 정반대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의 오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조차 교정되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과 전략환경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증명한 것”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수상레저사업 놓고 우도 주민 갈등

제주시, 보트영업 신규허가

신규 수상레저사업을 놓고 우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우도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은 수상레저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제주시로부터 천진항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 받았다.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은 러시아산 반잠수합식 보트 2대를 이용, 관광객들에게 수중경관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천진동 해녀들은 이날 제주시청을 방문해 물질시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천진항에 도항선이 다닌 이래 우리는 피해만 보았다. 도항선

을 위한 준설공사시 흙탕물이 나오면서 해산물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동천진동 해녀들이 우리바다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착취해 갔지만 우리는 몸싸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기 이전에 동천진동 해녀와 우리동네 해녀들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천진동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제는 우리와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는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조건이 아니다”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기자

“해군기지 신규항로 멸종위기종의 보고” 반대위 어제 기자회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를 추가 지정·고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항로에 멸종위기에 놓인 ‘산호총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의 신규 항로로 추진 중인 30도 항로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주축이된 ‘제주 연사호 TF’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30도 항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준설이 필요하다는 저수심 ‘암초’지역이 국내의 멸종위기 산호총류의 집단 서식지임이 확인됐

다. 구체적으로 이 곳에서 발견된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 6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었고, 빛단풍돌산호와 거품돌산호는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 지정 멸종위기종인 부속서 II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규 30도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과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서귀포해안도립공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에 모두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규 30도 항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현상심의에서 부동의 됐다”며 “제주도와 해군은 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비자림로 공사 반대단체 변호사 선임해 법정 투쟁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법정 다툼으로 변질 모양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자림로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집행정지 등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또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7회 온평초등학교 동문가족 단합체육대회 개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발전과 선후배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7회 온평초등학교 동문가족단합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손을 잠시 접으시고 가족과 함께 참석 하시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10월 05일(토) 09:30

■ 장 소 : 훈인지마을체육공원
(우천 시 : 마을체육관)

■ 행사관련 문의
회 장 현태화(19회) 010-8660-5758
사무국장 강주호(25회) 010-3692-1476

※ 행사는 우천 시에도 진행합니다.

온평초등학교동문회장

방 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그랜드 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글 신상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모독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리종 · 탐나는종 · 왕금향
미니향 · 아마니스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번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